

‘깜짝 스리백’ 꺼낸 흥명보호… 월드컵서 ‘플랜A’ 가능성

흥명보 감독 “월드컵에서 플랜A 될 수도”… 박진섭·박승욱·김주성 스리백 가동

동아시아컵 중국과 경기에서 ‘깜짝 스리백’ 꺼내 무실점 승리를 지휘한 흥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스리백 수비 전술이 다가올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플랜A’가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은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자부 1차전에서 이동경(김천), 주민규(대전), 김주성(서울)의 연속골로 중국에 3-0 완승을 거뒀다.

부임 후 포백을 주력 수비 전술로 활용해 온 흥명보 감독은 이날 수비수 세 명을 가동한 스리백 라인을 구축했다.

전북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는 박진섭(전북)이 스리백 수비의 중앙에 서고 왼쪽에 김주성, 오른쪽에 박승욱이 포진했다.

또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포항)과 김문환(대전)이 자리했다.

한 수 아래 전력인 중국을 상대로 수비 숫자를 늘린 스리백 전술을 사용한 한국은 경기 내내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물론 흥 감독이 스리백을 처음 사용한 건 아니다. 그는 지난달 쿠웨이트와의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 막판 스리백을 잠시 가동한 바 있다.

하지만 스리백을 경기 시작부터 쓴 건 중국전이 처음이었다.

후방에 세 명의 수비수를 뒀지만, 박진섭이 빌드업 과정에서 적극 가담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아울러 측면 수비가 가능한 박승욱이 상황에 따라 전진하면서 중원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했다.

과거 스리백은 전력상 열세인 팀이 수비 숫자를 늘려 후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지만, 이제는 빌드업에서 우위를 점할 때 자주 사용한다.

최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FIFA) 클럽월드컵에서도 사비 알론소가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스리백을 활용한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다.

흥명보 감독은 중국전 승리 후 “(월드컵) 3차 예선 때와 다른 건 수비적인 측면”이라며 “전통적인 수비수 3명이 스리백 역할을 했는데, 공격 루트를 만들어 간 게 굉장히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른쪽의 박승욱이 한두 번 실수 했지만 바로 수정했고, 반대로 전환해 이

태석이 찬스를 만드는 장면 등 준비한 패턴을 선수들이 집중력을 갖고 잘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전문 풀백이 포함된 스리백과 비교해 공격적인 전개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볼 배급과 전환 등에서 가능성을 봤다는 평가다.

흥 감독은 아울러 스리백 전술이 다가올 북중미월드컵에서 플랜A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플랜A가 될 수도 있고, 플랜B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앞으로 어떤 선수가 수비적, 공격적 역할로 들어갈 수 있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계속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년 뒤 선수들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 전술과 전략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암시했다.

흥 감독은 “월드컵에서 누가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느냐,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 곳에서 땀을 흘리는 전술 전략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강진군, 7~8월 하계 전지훈련 중심지로 우뚝

럭비·축구·펜싱 국가대표 및 명문학교 400여명 강진으로 모인다

강진군이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 하계 전지훈련 시즌에 돌입하며, 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하고 있다.

강진군은 7월, 8월 국군체육부대(상무) 럭비팀을 비롯해 청소년 국가대표, 양정고등학교, 백산고등학교, 이리고등학교, 경산고등학교 럭비팀이 잇달아 강진을 찾아 훈련에 돌입하고, 청소년 국가대표 펜싱팀과 고려대학교 축구팀, 전국 12개 중학교 축구팀도 강진에서 하계 전지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종목에서 유망 선수들이 강진을 찾는 이유는 세계적 활용 가능한 훈련 인프라와 청정 자연환경, 스포츠에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 덕분이다.

특히 강진군은 훈련에 최적화된 종합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다목적 실내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센터 등 우수

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맞춤형 행정 지원도 더해져, 참가팀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번 하계 전지훈련은 럭비, 펜싱, 축구 3개 종목, 20여 개 팀, 약 400여 명이 달하고, 1인당 하루 소비액은 평균 9만 원 이상으로, 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효과는 4억 6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여름철은 관광의 비수기지만, 하계 전지훈련을 계기로 선수단과 가족 등의 방문이 이어져 지역 상권에 온기가 돌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전지훈련은 단순한 훈련 유치에 그치지 않고, 강진을 알리고,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체육회, 종목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지훈련의 메카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인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종의역 등 일명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의한화/건설) | HDC엔지니어링

고흥군, 차범근과 함께하는 '2025 리그붐 페스티벌' 성료

유소년 교류전 통해 실력 향상과 우정 나눴다... 차범근 감독 사인볼 200개 전달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7월 5일 박지성공설운동장에서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 '2025년 리그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고흥 차범근축구교실에 참여 중인 학생들과 전북 무주군 차범근축구교실 수강생, 순천 주광선 FC 선수들이 함께 친선 경기를 펼치며 축구 실력을 키우고,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총 3개 시군에서 140여 명의 유소년 선수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연령대별로 3개 그룹으로 나뉘고, 각 그룹은 4개 팀으로 편성돼 3개 구장에서 동시에 경기를 진행했다. 선수들은 경기 내내 활기차고 진지한 모습으로 실력을 겨루며,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몸소 체험했다.

특히, 이날 차범근 감독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 200개가 참가자들에게 전달돼 큰 감동을 안겼다. 사인볼은 어린 선

수들에게 뜻깊은 추억이자 축구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북돋우는 계기가 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차범근 감독님과 훌륭한 코치진의 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팀워크를 함께 키워가는 모습에 든든함을 느낀다”며, “차범근축구교실이 고흥을 대표하는 스포츠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차범근 감독은 “리그붐 페스티벌은 지역 유소년 선수들이 '차범'과 함께 실전 경험을 쌓고, 서로 교류하며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차범근축구교실은 차범근 감독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탐차범에서 1988년부터 진행해 오던 유소년축구교실로 2023년부터 고흥과 무주 등 지방으로 운영 지역을 확대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순천시, 7월 스포츠로 도심 들썩! 지역·전국대회 잇달아

체조·탁구·바둑·댄스스포츠 등 총 2,700여 명 참가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지역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하반기 체육행사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생활체육부터 엘리트체육까지 아우르는 4개 대회가 팔마국민체육센터, 순천대학교 실내체육관 등 순천 곳곳에서 열렸다. 시민 참여가 돋보인 ▲제9회 순천시장애 생활체육대회 외에도 ▲제24회 순천시

장배 호남권 탁구대회 ▲제15회 순천국가정원배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제11회 순천국가정원배 전국 학생 바둑대회가 전국 각지 선수들의 실력을 겨루는 장으로 펼쳐졌다.

총 2,7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가 참가한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물론,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

순천/정성인 기자